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子宮에 對한 考察

- 子宮의 概念과 機能을 中心으로 -

¹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 ²韓醫學古典研究所

尹銀卿^{1, 2} · 白裕相^{1, 2} *

A Study on the Uterus in Korean Medical Literature based on its Meaning and Function

Yoon Eunkyung^{1, 2}, Baik Yousang^{1, 2}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e uter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woman's body. In Korean Medical literature, the uterus is mentioned in various contexts according to different perspectives on its meaning and function. An examination of these various contexts is crucial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uterus and to better understand and approach woman's body.

Methods : Aside from the most widely used term Jagung(子宮), there were various terms used to refer to the uterus. Based on a list of these terms, the Siku Qianshu collection of medical literatures was investigated. Contents related to the definition, shape, location, function were extracted and examined.

Results : Among the findings, first, there were various terms referring to the uterus similar to contemporary understanding. Some of them referred to the uterus as a whole, while others referred to specific parts, one of which is the placenta. Some reflected a broader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the uterus. Second, the functions of the uterus could be summarized as gate keeping, and the maintenance of uterine environment that is related to menstrua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Thir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the uterus and its functions, perspectives on the uterus in Korean Medicine could be summarized into two.

Conclusions : One viewed uterus as an organ dedicated to reproduction, similar to today's common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is view, uterus is a special organ specific to women, which functions as an incubator for the fetus. The other viewed the uterus as an intangible source of life in the woman's body. As a general source of life to all human beings, it is not a passive organ but functions as an active source in woman's life phenomena. The two perspectives are not in conflict, but rather reflect the broad range of thought on the

concept of the uterus in Korean Medicine. In today's biomedical society,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these perspectives could shed light on medical practices that have resulted from extreme views on the woman's body.

Key Words : Uterus, Zigong(子宮), Mingmun(命門), Korean Medicine, Woman's health

I. 序 論

자궁은 여성의 주요 生殖器官으로서 月經과 妊娠 및 出產에 관련한다. 자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타 臟腑에 비해 현대 생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논란이 비교적 덜하여 자궁을 Uterus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궁이 여성의 몸에서 妊娠 및 出產과 관련된 독특한 기능을 하며, 해부학적으로도 특징적인 구조를 지니는 기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궁에 대해 현대의 한의학 교과서에서도 “胞가 현대생리학에서 자궁을 말하는 것이며, 受胎, 妊娠, 出產, 月經 등의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고 현대 생의학적 관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면서도, 『黃帝內經』을 인용하며 한의학적 자궁개념을 天氣와 대비되는 地氣를 닮아 陰氣를 간직하고, 간직은 하되 쏟아내지는 않는 奇恒의 府라고 설명한다.¹⁾ 또한 자궁과 관련 있는 經絡 및 臟腑로는 衝·任·督·帶脈과 肝, 脾, 腎을 들어²⁾ 자궁이 그 자체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

니라 주변과 연계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中醫藏象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中醫藏象學』에서는 女子胞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胞宮’, ‘子宮’, ‘子臟’, ‘胞臟’을 들며, 그 기능을 月事와 妊娠 및 出產으로 설명하고, 관련 經絡으로는 衝·任·督·帶脈과 관련 臟腑로는 肝, 脾, 腎을 언급한다.³⁾ 교과서 외의 한의학 문헌에서 자궁은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즉, 기관으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醫家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어 성별을 초월한 인체의 생명유지를 주관한다고 보기도 해 그 의미가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교과서 및 문헌에 나타난 자궁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보면, 그 개념이 현대 생의학적 자궁과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시각 또한 공존하고 있어 자궁의 개념과 그 범위를 단정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 중에서 자궁에 관한 문헌 연구에는 車恩伊와 姜政秀(2000)의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자궁을 의미하는 용어로 ‘胞’, ‘子宮’, ‘子臟’, ‘胞宮’, ‘血室’, ‘丹田’, ‘命門’, ‘胞門’, ‘關元’, ‘子處’ 등을 언급하고,⁴⁾ 각 용어가 언급된 문헌을 고찰하여 그 맥락을 살폈다. 또한 기능과 관련 經絡 및 臟腑와의 관계를 살펴 자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 내용 정리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외의 관련 연구로는 婦人科에 관한 특정 문헌 중심연구⁵⁾⁶⁾와 전문 분야로서 婦人科의 특정 시대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02-961-9183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27 October 2016), Revised(14 November 2016),

Accepted(15 November 2016)

1)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p.344-345. “『素問·五臟別論』에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이 여섯 가지는 地氣가 生하는 것이니 모두 陰氣를 간직하고 地氣를 본받았으므로 간직은 하되 쏟아내지는 않으니 奇恒의 府라 한다”고 하여 이 여섯 가지가 모두 地氣에서 생겨 간직하고 버리지 않아 藏이 될 것이 腑가 되었으므로 奇恒 즉 非正常的인 腑라 하였다.”

2)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울. 집문당. 2014. p.345.

3) 王琦, 吳承玉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pp.729-733.

4) 車恩伊, 姜政秀. 胞에 對한 文獻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0. 8(2). p.2.

안에서의 연구⁷⁾, 그리고 婦人科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⁸⁾⁹⁾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婦人科의 문헌별, 시대별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한의학에서 婦人科의 맥락을 짚어주어, 한의학 역사 속에서 婦人科라는 전문분야의 발달과정과 특정한 문헌에서의 여성의학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한의학 분야 안에서의 여성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한의학적 여성의학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여성의 몸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는 부족하여 ‘한의학 문헌에 나타나는 자궁과 현대 생의학에서 언급하는 자궁은 같은가/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며, 그 외 다른 의미는 없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여성의 몸, 그 중에서 자궁의 한의학적 개념을 밝히고자 했다. 본문에서 ‘자궁’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먼저 실질장기로서 현대 생의학적 자궁(Uterus)의 의미와 유사하게 쓴 것이 하나이고, 본 연구의 목적인,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한의학적 개념의 ‘자궁’이 나머지 하나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자궁과 연관된 용어를 키워드 삼아 사고전서의 문헌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이란 자궁관련 용어의 개념이나 기능을 유추할만한 맥락을 일컫는다. 이후 이 내용을 분석하여 여러 문헌 속 자궁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한의학 문헌 속에 나타나는 자궁에 대한 관점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자궁에 대해 그것을 여성에게만 있는 실질장기로 보는 관점과,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있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을 발견했고, 이러한 폭넓은 관점이 실제로 여성의학 분야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향후 더 확장된 개념연구 및 여성의 몸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와 연구에 기여하고, 임상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 論

한의학 문헌에서 자궁과 연관된 용어를 중심으로 자궁의 개념과 기능이 드러나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체기관으로서 자궁, 보다 추상적인 의미의 자궁, 妊娠 및 出産과 연관된 자궁기능, 생명의 근원체로서의 자궁기능, 그리고 자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때의 병리상황에 대한 내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신체기관으로서 자궁개념

현대 생의학 분야에서 자궁(Uterus)은 여성의 골반 안쪽에 위치하며 배아가 착상하고 태반이 부착되며 태아가 성장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¹⁰⁾ Uterus는 라틴어로 복부, 자궁을 뜻하는 단어로, 자궁의 위치와 그에 따른 생식관련 기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의학 문헌에서 아기가 孕胎되는 여성 生殖器官으로서 자궁과 연관된 깊은 용어는 女子胞(胞), 子宮, 子藏, 子戶, 子腸, 血室, 子處, 胞宮, 胞門, 赤宮, 胎藏, 血海, 胞絡, 產門, 胞藏, 陰門, 胞胎, 胎元 등으로 다양한데, 문헌에서 각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의미 또한 저마다 다르다. 그 중에서 신체기관을 뜻하는 자궁개념을 먼저 살펴보겠다.

1) 자궁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

한의학 문헌에서 자궁을 뜻하는 용어들 가운데 자궁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에는 女子胞, 子宮, 子藏, 子藏, 胎藏, 胞宮, 子戶, 子腸, 血室, 子處가 있는데,

- 5) 김용진. 『孫眞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 婦人篇의 差異點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4).
- 6) 김혜원 외 3인. 『黃帝內經』에 나타난 婦人科에 관한 文獻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1).
- 7) 趙勉彙, 朴炫局. 明·清代 婦產科의 醫史學的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10.
- 8) 張溶薰. 宋代以前の 婦人科 疾病史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醫院 博士學位論文. 2003.
- 9) 尹憲重. 金元時代 및 明清時代의 婦人科 疾病史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醫院 博士學位論文. 2004.

- 1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snuh.org/>

그 중 ‘女子胞’가 『素問·五藏別論』에 처음 등장한다. 여기에서 女子胞는 여섯 개의 奇恒之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地氣를 닮아 陰氣를 간직하며 간직하되 쏟아내지는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¹¹⁾ 『類經』에서 張介賓은 女子之胞가 곧 자궁이며, 여자의 경우 여기에서 妊娠이 이루어지므로 胞라고 이른다 했다.¹²⁾ 그는 胞 즉 자궁이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어 여기에 精을 藏한다고 보아 자궁의 개념을 크게 보았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아이가 孕胎되는 장소로서 ‘子宮’이 가장 널리 쓰인 용어였다. 『醫說』에서는 열달이 지난 뒤 자궁이 스스로 열려 아이를 出産하게 된다고 했고,¹³⁾ 『仁齋直指』에서는 자궁이 체대로(제 때에) 열려 精을 받으면 아이가 생기고, 때를 놓쳐서 자궁이 닫히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¹⁴⁾ 이는 자궁이 아이가 孕胎되는 곳이며 자궁에는 開閉의 기능이 있어서 適期에 맞추어 그 기능을 수행해야함을 뜻한다. 『格致餘論』에서도 아이가 孕胎되는 장소를 子宮이라 일컬었으며¹⁵⁾ 자궁의 생김새를 묘사해놓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현대 해부학에서 묘사한 자궁의 모습과 흡사하여 흥미롭다.¹⁶⁾ 『名醫類案』에서도 자궁이 탈출한 환자의 경우를 통하여 본 자궁의 생김새를 설명했다.¹⁷⁾

문헌에 등장하는 용어에는 ‘子藏’도 있었다. 『金匱要略論注』에서는 子藏이 자궁과 같은 것이라 했고,¹⁸⁾ 이는 『御纂醫宗金鑑』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¹⁹⁾ 『婦人大全良方』에서는 婦人の 胞門과 子臟에 風冷의 氣가 들어오면 병이 된다고 했고,²⁰⁾ 『本草綱目』에서는 胞門, 子臟이 奇恒之府로 사람을 生하는 門이라고 하면서 胞門과 子臟을 함께 언급했는데,²¹⁾ ‘藏’과 ‘臟’은 통용되는 글자로 둘 다 자궁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일 수 있으나, 이 두 문헌에서 胞門과 함께 ‘月(肉)’이 들어간 ‘子臟’을 쓴 것은 子藏과는 다른 子臟 고유의 뜻을 의도한 것일 수 있다. 즉, 胞門과 함께 쓰이는 ‘月(肉)’이 들어간 ‘子臟’은 자궁 경부를 제외한 자궁체부만을 지칭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類經附翼』에서 張介賓은 子戶, 子腸이 모두 자궁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자궁의 위치가 直腸의 앞, 膀胱의 뒤, 關元 氣海의 사이라고 해 그 구체적인 위치를 밝혔다.²²⁾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胎藏은 子藏이나 子宮과 마찬가지로 妊娠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장소로 언급되었다.²³⁾ 이후의 『普濟方』²⁴⁾, 『證治準繩』²⁵⁾에서도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42.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12)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114. “衝任爲經絡之海, 其起脈之處, 則在胞中而上行於背裏, 所謂胞者, 子宮是也. 此男女藏精之所, 皆得稱爲子宮, 惟女子於此受孕, 因名曰胞.”
13) 張杲. 醫說.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1. p.722. “十月已滿, 陰陽氣足, 則其子宮自開, 而兒子生下.”
14)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32. “此時子宮正開, 乃受精結胎之候, 妙合太和之時, 過此佳期則子宮閉而不受胎矣.”
15) 朱彥修.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格致餘論.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5. “胎孕乃凝所藏之處, 名曰子宮.”
16) 朱彥修.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格致餘論.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5. “成胎以精血之後, 先分男女者, 精澄之論, 愚切惑焉. 後閱李東垣之方, 有曰經水斷後一二日, 血海始淨, 精勝其血, 感者成男. 四五日後血脈已旺, 精不勝血, 感者成女. 此確論也 … 陰陽交構, 胎孕乃凝, 所藏之處, 名曰子宮. 一系在下, 上有兩歧, 一達於左, 一達於右”

17) 江權.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483. “一婦產後陰戶下一物如合鉢狀有二歧此子宮也”
18) 張機.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金匱要略論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70. “子藏者, 子宮也.”
19)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東醫文獻研究室. 2006. p.366. “李彥曰, 按子藏即子宮也”
20)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49. “婦人有胞門, 子臟, 風冷中之, 則爲所病.”
2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p.3283. “胞門子臟爲奇恒之府, 所以爲生人之戶, 常理也.”
22)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夫所謂子戶者, 即子宮也. 即玉房之中也. 俗名子腸, 居直腸之前, 膀胱之後, 當關元氣海之間”
23) 陳承. 太平惠民和劑局方.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57. “婦人血氣不足, 崩漏虛損帶下女冷胎藏無子, 服之無不愈者”
24)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3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52. “婦人胎藏久冷, 絕孕無子, 赤白帶下, 月經不調, 風冷血氣, 並皆治之, 常服助養真元補暖丹, 活血悅顏健骨輕身.”
25) 王肯堂.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7 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62. “或傷寒吐逆, 欬嗽, 寒熱往來, 遍身生瘡, 頭痛惡心, 經脈不調, 赤白帶下, 乳生惡氣, 胎藏虛冷, 數曾墮胎, 崩中不定, 因此成疾, 室女經脈不通.”

胎藏을 風冷의 邪氣가 들어올 수 있는 기관으로 보았다.

‘胞宮’ 또한 구체적인 장소로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치를 설명할 때 張介賓은 胞宮으로 자궁을 지칭하였으며²⁶⁾, 병리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胞宮은 상함을 받는 곳으로서 언급되었다.²⁷⁾ 『婦人大全良方』에서 언급되어 이후에 계속해서 인용된 병리기전에서는 胞宮에 風熱의 邪氣가 들어가 寒熱이 왕래하는 증상을 설명했는데,²⁸⁾ 熱入血室證의 기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胞宮이 血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책에서 『巢氏諸病源候總論』과 『產寶方』에서 말한 胞門과 子戶가 張仲景이 말한 血室이라고 말했는데,²⁹⁾ 이로 미루어보면 陳自明은 胞宮이 자궁과 胞門, 子戶를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 것 같다.

‘血室’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먼저 傷寒論의 ‘熱入血室’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많이 보였는데, 『婦人大全良方』, 『薛氏醫案』, 『景岳全書』 등에서는 寒氣가 血室에 客한다고 해³⁰⁾³¹⁾³²⁾ 血室을 기관으로서의 자궁이라고 보았다. 血室은 이외에도 추상적인 자궁개념 가운데 여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급되기도 했고,³³⁾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했다.³⁴⁾ 또한 血室이 血海라고 보기

도 했으며³⁵⁾ 자궁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衝脈이나 衝任脈을 의미하기도 했다.³⁶⁾³⁷⁾³⁸⁾ 마지막으로 ‘子處’가 있는데, 이는 자궁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얼굴에서 望診을 할 때에 자궁에 해당하는 부위로서의 의미였다.³⁹⁾

2) 자궁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

해부학적 자궁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자궁경부와 자궁체부 및 양쪽으로 뻗은 나팔관이 있다. 한의학 문헌에서도 자궁의 형태를 “一物如合鉢，狀有二岐，此子宮也”⁴⁰⁾라고 하여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나팔관은 따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질 입구를 포함하는 門으로서의 자궁 경부와 속이 비어 있는 주머니 모양의 자궁체부를 가리키는 용어를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 자궁경부

여기에서 자궁경부는 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현대 해부학적 질 입구와 자궁경부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⁴¹⁾ 개폐를 하는 門으로서의 자궁경부를

熱入血室加生地黄”

26)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356. “中極之下，即胞宮之所”

27)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6. “若觸損胎氣胞宮受傷而血下者，宜安胎散膠艾湯，去血多者，倍加人參”

28)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401. “產後傷風，熱入胞宮，寒熱如瘧”

29)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348. “巢氏病源并產寶方並謂之胞門子戶，張仲景謂之血室.”

30)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32. “此由寒氣客於血室”

31) 薛己.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1 薛氏醫案. 서울. 大星文化社. 1995. 704. “若寒氣入腹血室結聚最難治療”

32)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47. “治寒氣客於血室，以致血氣凝滯臍腹作痛，其脈沈緊”

33)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96. “胞子宮也. 在男則爲精室，在女則爲血室.”

34) 孫一奎.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4 赤水玄珠.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1. “婦人熱入血室加當歸紅花. 男人

35)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5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64. “血室者即衝任血海也，亦血分也”

36) 張機.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傷寒論注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42. “王冰曰，陰靜海滿而去血，謂衝脈盛爲海滿也. 即是觀之，衝是血室可知矣.”

37)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醫家以衝任之脈盛於此則，月事以時下，故名之曰血室”

38) 王好古.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3 此事難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27. “血室者，血之所居也. 榮衛停止之所，經脈流會之所，衝脈是矣. 衝者，奇經之一也.”

3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7. “面王以下者，膀胱子處也.”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248. “子處之應，子處，子宮也.”

40) 江瓘.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483.

41) 뒤에서 子臟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胞門’과 나란히 나온다. 門의 의미를 지니는 ‘胞門’과 함께 쓰인 ‘子臟’이 주머니 모양의 자궁체부를 가리키는 것임을 邪氣가 ‘머문다’는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다.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49. “婦人有胞門，子臟，風冷中之，則爲所病.”

지칭하는 용어에는 胞門, 子門, 陰門, 產門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 용어는 ‘胞門’이었다.

『本草綱目』에서는 胞門과 子臟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이 둘이 각기 다른 부분을 가리킴을 암시했다.⁴²⁾ 여기에서 胞門은 자궁경부를, 子臟은 자궁체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金匱要略論注』에서 胞門은 子宮과 통하는 것으로 陰 가운데의 門이며 月事가 내려오는 길이라고 해 통로로서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⁴³⁾ 『巢氏諸病源候總論』에서는 出產 시 과도하게 힘을 썼을 때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이때 胞門이 상할 수 있음을 말했다,⁴⁴⁾ 開閉를 담당하는 門으로서 胞門에 문제가 생겨 無子인 경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備急千金要方』과 『鍼灸資生經』에서는 關元穴에 뜬을 따라고 했다.⁴⁵⁾ 『類經圖翼』에서도 胞門이 폐색되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언급했고,⁴⁶⁾ 『千金翼方』을 인용하며 자궁의 門이 폐색되어 妊娠이 되지 않거나 遺産이 되거나 腹痛이 있거나 下血을 하는 경우에 胞門穴에 뜬을 따라고 했는데,⁴⁷⁾ 여기에서 胞門은 자궁경부 외에도 穴자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普濟方』에서도 穴자리로 쓰여 任脈이 胞門과 子戶에서 일어난다고 했다.⁴⁸⁾⁴⁹⁾ 子戶와 짝을 이루는 穴로서 胞門과 子戶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御纂醫宗金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⁵⁰⁾ 여기에서 胞門은 穴자리 외에도 자궁경부를 지칭했는데, 妊娠 시 惡阻症의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⁵¹⁾ 『婦人大全良方』에서는 婦人の 胞門과 子臟에 風冷의 기운이 있으면 병이 된다고 해 邪氣가 들어가 머무는 병리를 설명하면서 통로 및 장소로서 胞門을 언급했다.⁵²⁾ 『仁齋直指』에서는 衝任脈의 氣가 虛하고 慾心이 과도하면 風冷熱의 邪氣가 胞門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胞門과 衝任脈의 관계를 언급하였으며,⁵³⁾ 『普濟方』에서도 心肝이 상하면 血脈이 動하게 되어 衝任脈이 허해져 胞門이 단단하지 못하다고 했다.⁵⁴⁾ 胞門과 유사한 용어로 ‘子門’은 張介賓이 『類經』에서 명확하게 설명했다.⁵⁵⁾ ‘陰門’의 경우 『普濟方』에서 子臟과 나란히 쓰였는데, ‘胞門’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궁체부와 구분되는 門으로서 자궁경부를 뜻함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⁵⁶⁾⁵⁷⁾

出產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產門’은 『證治準繩』에서 妊娠 시의 병증 가운데 갑자기 부어오르는 경

文化社. 1995. p.527. “婦人胞胎之數背在陰裏, 萬物皆從生淵深血脈精氣, 所從行腎爲陰, 陰主開閉, 左爲胞門, 右爲子戶, 主定月水生子之道, 胞門主於子精, 精神氣所出入, 合於中黃門玉門四邊”

- 4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p.3283. “胞門子臟爲奇恒之府, 所以爲生人之戶, 常理也.”
- 43) 張機.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金匱要略論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86. “胞門, 卽子宮所通, 陰中之門也, 爲經水孔道.”
- 44)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38. “因產時用力, 損於胞門, 損於子臟, 腸下乘而成瘕”
- 45) 孫思邈.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3. “婦人絕嗣不生, 胞門閉塞, 灸關元三十壯報之”
王執中. 鍼灸資生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10. “婦人絕嗣不生胞門閉塞關元三十壯報之”
- 46)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291. “又云胞門閉塞絕子, 灸關元三十壯報之”
- 47)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327. “千金翼云, 子藏門塞, 不受精妊娠不成, 若墮胎腹痛漏胞見赤, 灸胞門五十壯.”
- 48)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5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8. “任脈者, 起於胞門子戶”
- 49)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5 普濟方. 서울. 大星

- 50)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東醫文獻研究室. 2006. p.366. “臍下三寸, 爲關元. 關元左二寸爲胞門, 右二寸爲子戶, 命門爲女子繫胞之處”
- 51)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東醫文獻研究室. 2006. p.614. “惡阻有因胎氣阻逆者, 乃受胎後胞門閉塞, 藏氣內阻挾胎氣上逆於胃”
- 52)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49. “婦人有胞門, 子臟, 風冷中之, 則爲所病.”
- 53)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24. “衝任氣虛, 內慾過度, 風邪冷熱, 諸氣入於胞門”
- 54)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6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61. “傷於心肝, 觸動血脈衝任經虛, 乃至胞門不固”
- 55)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629 “胞卽子宮也. 男女皆有之, 在男謂之精室, 在女謂之血海. 子門, 卽子宮之門也.”
- 56)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5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08. “夫心主於血, 合於水, 腹小腸者, 通於陰門, 子臟故也.”
- 57)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38. “因產時用力, 損於胞門, 損於子臟, 腸下乘而成瘕”

우에서 언급되었고,⁵⁸⁾ 『類經附翼』에서는 여자에게서 손으로 만져보면 자궁의 아래에서 產門을 만질 수 있다고 했다.⁵⁹⁾ 張介賓은 이 門 또한 남자에게 있으며, 남자는 이 門으로 하여금 열어 (정액을) 베풀어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여자는 이 門으로 하여금 (정액을) 받아들여, 태아가 충분히 성장하면 다시 이 문을 통해 나가니,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모두 이 문을 통한다고 하여 產門을 개폐의 기능을 하는 자궁경부의 의미로 설명함과 동시에 남성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신체부위가 아님을 말했다.⁶⁰⁾

(2) 자궁체부

문헌에서 자궁경부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開閉를 하는 門으로서 사용되었다. 자궁체부를 가리키는 용어는 그 의미 상 자궁전체를 가리킬 때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자궁경부를 언급하는 용어와 함께 쓰여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자궁전체가 아니라 자궁 경부를 제외한, 속이 비어있는 주머니로서의 자궁체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婦人大全良方』에서는 婦人の 胞門과 子臟에 風冷의 氣가 들어오면 병이 된다고 하여⁶¹⁾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말했고, 『本草綱目』에서는 胞門, 子臟이 奇恒之府로서 사람을 생하는 門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胞門과 子臟을 언급했는데 비록 주머니로서 子臟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子宮 전체를 奇恒之府로 보는 맥락에서 胞門과 子臟을 따로 언급한 것이 '門'의 부위와 주머니 부위를 구분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⁶²⁾

(3) 태반

한의학에서 자궁은 아이를 孕胎하고 養育하여 時期適切한 出産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妊娠 시에 태아와 자궁을 연결 시켜주는 태반이 중시되어, 그에 관한 내용을 문헌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景岳全書』에서는 『顛顛經』을 언급하면서 妊娠 첫 달에 胞胎의 精血이 영긴다고 해 오늘날의 착상 과정을 설명했고,⁶³⁾ 건강한 胞胎의 형성에는 衝任脈의 역할이 커 그것이 허약하여 胞胎를 굳게 기르지 못하면 조기유산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⁶⁴⁾ 『普濟方』에서는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胞胎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며,⁶⁵⁾ 『類經附翼』에서는 葉文叔을 인용하여 사람이 처음 생을 받는 것이 胞胎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⁶⁶⁾

태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妊娠 시에 생겨나는 것이기에 태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 또한 많았다. 먼저 『仁齋直指』에서는 胞胎가 오직 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精과 함께 이루어져 있음을 말했고,⁶⁷⁾ 『醫門法律』에서는 月經을 통해 胞胎가 형성된다고 보아 매달 이루어지는 月經이 妊娠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⁶⁸⁾

태반을 뜻하는 또 다른 용어인 '胎元'은 『景岳全書』에서 언급되었다. 여기에서는 여성이 나이가 들면 胎元이 무력해져 妊娠과 出産 과정이 어려워진다고 했다.⁶⁹⁾

“胞門子臟爲奇恒之府，所以爲生人之戶，常理也。”

58) 王肯堂.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7 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16. “治胎前諸疾，或因怒中氣衝子臟，或衝脾脈腹急肚脹腰腹時疼，不思飲食，四肢浮腫，氣急時喘，大便忽澀，小便忽澀，產門忽腫”
59) 張介賓. 類經附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子宮之下有一門，其在女者，可以手探而得，俗人名爲產門.”
60) 張介賓. 類經附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男之施由此門而出，女之攝由此門而入，及胎元既足復由此出，其出其入，皆由此門.”
61)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49. “婦人有胞門，子臟，風冷中之，則爲所病.”
6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p.3283.

63)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8. “巫方氏顛顛經云一月爲胞胎精血凝也”
64)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6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87. “傷於肝，觸動血脈衝任經虛，乃至胞門不固”
65)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5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4. “人受形於胞胎”
66) 張介賓. 類經附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葉文叔曰，人受生之初，在胞胎之內”
67)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23. “血藏於肝流注子臟，而主其血者在心，上爲乳汁，下爲月水，合精而爲胞胎獨非血乎.”
68) 喻昌.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51 醫門法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16. “婦人之於血也，經水蓄則爲胞胎”
69)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2. 추상적 의미의 자궁개념

‘子宮’은 아이가 孕胎되는 여성의 生殖器官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존재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胞는 자궁이며, 이것이 남성에서는 精室, 여성에서는 血室이라고 했다.⁷⁰⁾ 또한 남성에게 精室이며 여성에게 血海라고도 했으며,⁷¹⁾ 여성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妊娠이 이루어지므로 胞라고 이른다 했다.⁷²⁾ 그는 『類經附翼』에서도 자궁의 위치와 속성을 설명하면서 남성의 精, 여성의 血이 모두 存하는 곳으로 자식이 여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子宮은 남녀의 통칭이라고 했다.⁷³⁾ 이는 子宮이 남녀 모두에게서 藏精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 것으로, 子宮을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赤水玄珠』에서 孫一奎는 血室의 개념이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고,⁷⁴⁾ 東垣은 『蘭室秘藏』에서 胞를 언급하면서 赤宮, 丹田, 命門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張介賓과 마찬가지로 자궁개념을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의미로 본 것이다.⁷⁵⁾

3. 자궁의 기능

- 大星文化社. 1995. p.39. “一凡婦人年及中衰, 胎元無力, 則常有胎不能長, 及多小產昏暈之患.”
- 70)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96. “胞子宮也. 在男則爲精室, 在女則爲血室.”
- 71)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629. “胞即子宮也. 男女皆有之, 在男謂之精室, 在女謂之血海. 子門, 即子宮之門也.”
- 72)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114. “衝任爲經絡之海, 其起脈之處, 則在胞中而上行於背裏, 所謂胞者, 子宮是也. 此男女藏精之所, 皆得稱爲子宮, 惟女子於此受孕, 因名曰胞, 然衝任督脈, 皆起於此, 所謂一原而三岐也.”
- 73)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居直腸之前, 膀胱之後, 當關元氣海之間, 男精女血, 皆存乎此, 而子由是生, 故子宮者, 實又男女之通稱也.”
- 74) 孫一奎.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4 赤水玄珠.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1. “婦人熱入血室加當歸紅花. 男人熱入血室加生地黃”
- 75) 李東垣.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蘭室秘藏.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803. “胞者一名赤宮一名丹田一名命門, 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源,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문헌에 나타나는 자궁의 기능에는 크게 月經, 妊娠 및 出產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궁은 開閉의 기능과 孕胎 및 태아의 養育에 적합한 자궁 내부 환경의 조성과 유지를 하게 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궁의 開閉機能과 내부 환경 조절 기능은 자궁 자체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서 관련되어 있는 經絡 및 臟腑와의 協助를 통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자궁은 그것을 남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 精을 갈무리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자궁은 인간 보편적인 생명의 근원처로서 命門과 연결되어 보다 근본적인 생명활동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1) 月經의 규칙적 시행

여성의 생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月事가 일어나는 일은 『素問·上古天眞論篇』에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궁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앞서서도 나왔듯, 『類經』에서 胞는 子宮 相火가 있는 곳이며, 心은 血脈을 주하고 君火가 있는 곳으로 上下의 相火와 君火가 교류하여 月經이 일어난다고 보았다.⁷⁶⁾ 또한 月經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妊娠을 위한 과정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醫門法律』에서 月經을 통해 자궁 내에서 태아의 養育에 핵심적인 胞胎가 형성된다고 보았다.⁷⁷⁾ 즉, 月經은 인체의 생명활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妊娠에 관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2) 妊娠과 태아의 養育 및 出產

앞서 언급되었던 개념들을 살펴보면, 자궁은 아이가 孕胎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지배적이었다. 자궁의 開閉機能이 정상적이고 자궁 자체가 邪氣나 虛損에 의해서 損傷되지 않아 성공적으로 孕胎가 되

- 76)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65. “胞即子宮, 相火之所在也. 心主血脈, 君火之所居也. 陽氣上下交通, 故胞脈屬心而絡於胞中, 以通月事. 今氣上迫肺, 則陰邪遏絕陽道, 心氣不得下行, 故胞脉閉而月事斷矣.”
- 77) 喻昌.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51 醫門法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16. “婦人之於血也, 經水蓄則爲胞胎”

면, 그 안에서 아이를 온전하게 길러내 적절한 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⁷⁸⁾⁷⁹⁾ 즉, 妊娠, 養育, 出産이 子宮의 主機能으로 언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子宮의 閉閉機能과 내부 환경의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 妊娠의 환경 및 조건

妊娠에는 子宮의 閉閉機能과 子宮 자체의 환경이 중요하다. 『仁齋直指』에서는 子宮이 제대로(제 때에) 열려⁸⁰⁾ 精을 받으면 아이가 생기고, 때를 놓쳐서 子宮이 닫히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子宮의 개폐시기가 妊娠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했고, 『景岳全書』에서는 婦人의 月經이 막 그친 때에 子宮이 잘 열리므로 이때가 ‘布種’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며, 이때가 지나고 나서는 ‘子宮이 胎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⁸¹⁾ 또한 『類經』에서 張介賓은 心은 血을 주관하고 腎은 子宮을 주관하여 함께 妊娠을 주관한다고 해,⁸²⁾ 妊娠에 있어서 血의 중요성,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心腎의 相互作用을 강조했다.

(2) 태아의 養育(성별 나뉨 포함)

妊娠이 되면, 子宮 내에서 열달 동안 태아를 養育한다. 여기에는 건강한 胞胎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衝任脈이 健實해야 함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子宮에 오래된 병이 있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孕胎가 되어도 굳게 기르지 못해 아이가 커지지 않으며 달을 채워도 나

을 수 없다고 말했다.⁸³⁾ 『婦人大全良方』에서는 子宮 안에서 태아가 안정적으로 養育될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며, 血氣가 조화롭지 않은 경우에는 子宮에 邪氣가 들어와 아이가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해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⁸⁴⁾ 『普濟方』에서는 妊娠婦가 높은 곳에 올라 風이 陰戶를 통해 子宮으로 들어오면 胎動不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⁸⁵⁾ 子宮 자체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子宮 안으로 邪氣가 들어오는 경우 또한 養育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했다.

妊娠의 과정에서 태아의 성별 또한 나뉜다. 『推求師意』에서는 左側 子宮과 右側 子宮을 구분하여 남아는 左側 子宮에서 受胎되고, 여아는 右側 子宮에서 受胎된다고 했다.⁸⁶⁾ 이에 따라 婦人을 뒤에서 볼렀을 때 돌아보는 쪽이 달라져 鬻속의 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⁸⁷⁾ 이처럼 子宮은 妊娠 후 태아를 養育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성별이 정해지는 데 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3) 안전한 出産(적기의 出産)

子宮 내에서 아이가 養育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는 것이 出産이다. 그러나 때때로 子宮의 閉閉機能에 문제가 있거나 子宮이 虛損하면 아이가 열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거나 鬻속에서 유산이 되기도 한다. 子宮의 出産 기능을 『醫說』에서는 열달을 채워 陰陽의 氣運이 충족하면 子宮이 스스로

78)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32. “此時子宮正開, 乃受精結胎之候, 妙合太和之時, 過此佳期則子宮閉而不孕矣.”

79) 張泉. 醫說.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1. p.722. “十月已滿, 陰陽氣足, 則其子宮自開, 而兒子生下.”

80)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32. “子宮正開, 乃受精結胎之候, 妙合太和之時, 過此佳期則子宮閉而不孕矣.”

81)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2. “按此言婦人經期方止其時子宮正開便是布種之時過此佳期則子宮閉而不孕矣”

82)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p.223-224. “蓋心主血, 腎主子宮, 皆胎孕之所主也.”

83)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238. “子臟挾疾, 久不成胎, 或受妊不能固養, 痿燥不長, 過月不產.”

84)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6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05. “夫陽施陰化, 故得有胎榮衛調和則經養周足, 故胎得安則, 能成長. 若血氣虛損者, 子臟爲風寒所苦, 則血氣不足, 故不能養胎, 所以數墮胎也.”

85)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6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61. “或因登高上廁風攻陰戶入於子宮, 如此皆令胎動不安也.”

86) 戴原禮. 四庫醫學叢書 推求師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40. “男受胎於左子宮, 女受胎於右子宮.”

87) 王肯堂.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7 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43. “婁全善云, 按丹溪云, 男受胎在左子宮, 女受胎在右子宮, 斯言大契, 是說也. 蓋男胎在左則左重, 故回首時慎護重處, 而就左也. 女胎在右則右重, 故回首時慎護重處, 而就右也.”

열린다고 설명했다.⁸⁸⁾

3) 生命의 根源處

자궁개념을 남녀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시킨 데에는 자궁을 여성의 生殖器官으로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丹田, 氣海, 命門과 같은 선상에서 生命의 根源處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논한 張介賓은 丹田, 血室, 氣海가 그것이 사용되는 분야마다 이름은 다르나 실제로는 하나이며, 근원의 의미는 통한다고 보았다.⁸⁹⁾ 또한 그는 『類經』에서 胞는 子宮이며, 元陽이 모이는 命門이라고 했다.⁹⁰⁾ 胞는 子宮 相火가 있는 곳이고, 心은 血脈을 주하며 君火가 있는 곳으로, 上下의 相火와 君火가 교류함으로써 月事가 일어난다고 했는데,⁹¹⁾ 月事를 인체의 근원인 相火와 君火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것을 여성 특유의 생리작용으로만 보기보다는 보편적인 生命活動의 일부로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궁 개념을 확장시켜 본 李東垣 또한 胞를 丹田 및 命門과 같은 의미로 보아 남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인체 생명력의 근원으로 보고 天地에 빚대었고, 그 象이 坤土와 유사하여 만물이 생하는 근원임을 밝혔다.⁹²⁾

88) 張杲. 醫說.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1. p.722. “十月已滿陰陽氣足, 則其子宮自開而兒子生下.”

89)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道家以先天真一之炁藏乎此, 爲九還七返之基, 故名之曰丹田. 醫家以衝任之脈盛於此, 則月事以時下, 故名之曰血室. 葉文叔曰, 人受生之初在胞胎之內, 隨母呼吸, 受氣而成, 及乎生下, 一點元靈之氣, 聚於臍下, 自爲呼吸, 氣之呼吸乎天根, 氣之吸接乎地根, 凡人之生唯氣爲先, 故又名爲氣海. 然而名雖不同, 而實則一子宮耳.”

90)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228. “胞子宮也. 命門元陽之所聚也. 胞之脈繫於腎, 腎之脈繫舌本, 胞氣不足, 當靜而無言.”

91)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65. “胞即子宮, 相火之所在也. 心主血脉, 君火之所居也. 陽氣上下交通, 故胞脈屬心而絡於胞中, 以通月事. 今氣上迫肺, 則陰邪逼絕陽道, 心氣不得下行, 故胞脈閉而月事斷矣.”

92) 李東垣.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蘭室秘藏. 서울. 法人文化社. 2007. p.803. “胞者一名赤宮一名丹田一名命門, 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源,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4. 자궁의 병리

자궁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와 다양한 맥락, 그리고 이를 통해 자궁의 기능을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맞춘 開閉와, 妊娠을 가능케 하고 태아를 養育하기에 적절한 자궁 내부의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病理現象으로 이어지는데, 주로 無子와 子宮脫出이 나타났다. 자궁과 관련된 病理現象이 이 두가지 증상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궁의 병리현상을 모두 파악해서 분류하는 일은 자궁의 다양한 맥락과 기능을 중심으로 자궁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본 논문의 취지와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자궁의 기능을 살펴보는 가운데 드러난 病理現象은 자궁의 개념 및 기능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므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1) 開閉의 문제

자궁에는 門이 있어 開閉를 담당한다. 胞門이라고 가장 널리 일컬어지는 이 門은 적절한 때에 열리고 닫혀서 妊娠 및 出産에 관여하는데, 열려야 할 때 열리지 못하고 닫혀야 할 때 닫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자궁이 남성의 精을 받아야 할 때 열리지 않으면 妊娠이 되기 어렵고, 妊娠이 된 이후에는 닫혀야 하는데 닫히지 않으면 妊娠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出産할 때가 되었는데 열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出産 후에는 닫혀야 하는데 열린 채로 있어 병이 들기도 한다. 『仁齋直指』에서는 자궁이 제대로 (제 때에) 열려⁹³⁾ 精을 받으면 아이가 생기고, 때를 놓쳐서 자궁이 닫히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한다. 『類經圖翼』에서도 胞門이 閉塞되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언급하며,⁹⁴⁾ 『千金翼方』을 인용하며 자궁의 門이 閉塞되어 妊娠이 되지 않거나 遺産이 되거나 腹痛이 있거나 下血을 하는 경우에 胞

93)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32. “子宮正開, 乃受精結胎之候, 妙合太和之時, 過此佳期則子宮閉而不受胎矣.”

94)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291. “又云胞門閉塞絕子, 灸關元三十壯報之”

門穴에 뜸을 뜨라고 권한다.⁹⁵⁾ 이에 앞서 『景岳全書』에서 張介賓은 開闔이 문제가 되어 交骨이 열리지 않거나 產門이 닫히지 않는 경우를 언급했으며, 이것은 陰氣不足에 따른 것이라고 원인을 밝혔다.⁹⁶⁾

2) 자궁자체의 문제

開閉의 문제 외에도 자궁 자체의 문제가 病理現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로 자궁 내부의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邪氣가 客하거나 자궁이 虛損하면 無子나 자궁이 아래로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婦人大全良方』에서는 婦人の 胞門과 子臟에 風冷의 기운이 있으면 病이 된다고 했고,⁹⁷⁾ 더욱 구체적인 病理로는 風冷의 氣가 經을 올라타면 血이 子臟에서 멎친다고 했다.⁹⁸⁾ 『巢氏諸病源候論』에서는 子臟에 병이 있어 胞가 내부에 邪氣를 받으므로 無子라고 했고,⁹⁹⁾ 胞絡이 손상되면 자궁이 虛冷해져 氣가 아래로 衝하여 음부가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¹⁰⁰⁾ 또한 出產 시에 과도하게 힘을 쓰면 胞門과 子臟이 손상되어 腸에 潰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¹⁰¹⁾ 『證治準繩』에서는 出產 시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자궁이 아래로 빠진 경우를 ‘癩病’이라 일컬었으며,¹⁰²⁾ 『

赤水玄珠』에서도 『婦人大全良方』을 인용하면서 생식기가 돌출하여 아래로 빠져 나오는 病理를 설명했다.¹⁰³⁾ 또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도 자궁의 血氣가 부족하면 결국 無子로 이어질 수 있다는 病理를 언급했다.¹⁰⁴⁾

5. 자궁과 연관된 네트워크

앞에서도 언급했듯, 자궁은 開閉의 調節과 내부의 환경 조성 및 유지를 통하여 月事, 妊娠, 養育, 出產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자궁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고 있는 經絡 및 臟腑와의 協助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궁에서 나타나는 각종 現象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망, 즉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일부로서의 자궁을 살펴야 한다. 月事가 일어나고 태반을 만들어 養胎하는 자궁은 血의 작용을 매개로 經絡 및 臟腑와 관계망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精神氣血이 相互作用하며 여성의 生命現象에 관여한다.¹⁰⁵⁾ 또한 자궁개념을 확장시켜 본 관점에서는 자궁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곳이라는 맥락에서 자궁과 인체의 생명에 관여하는 經絡 및 臟腑들이 여러 교차점을 형성하고 있다.

1) 經絡

자궁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經絡 및 臟腑와 긴밀히 協助한다. 『

95)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327. “千金翼云, 子藏門塞, 不受精妊娠不成, 若墮胎腹痛漏胞見赤, 灸胞門五十壯.”

96)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8. “交骨不開產門不閉, 無非陰氣不足. 陰不足, 則氣不達所以不開不閉, 則產必艱難, 宜加味芎歸湯, 補而開之, 大有奇效, 或十全大補湯亦可.”

97)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49. “婦人有胞門, 子臟, 風冷中之, 則爲所病.”

98)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288. “風冷之氣乘其經血, 結於子臟.”

99)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29. “病在子臟胞內受邪故令無子也”

100)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38. “胞絡傷損, 子臟虛冷氣下衝, 則令陰挺出, 謂之下脫. 亦有因產而用力偃氣, 而陰下脫者, 診其少陰脈浮動, 浮則爲虛, 動則爲悸, 故令下脫也”

101)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38. “因產時用力, 損於胞門, 損於子臟, 腸下乘而成瘻”

102) 王肯堂.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7 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70. “產後因產中用力太過, 子宮脫下俗名癩病.”

103) 孫一奎.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4 赤水玄珠.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53. “良方曰婦人陰挺下脫, 或因胞絡傷損, 或因子臟虛冷, 或因分娩用力所致”

104) 陳承. 太平惠民和劑局方.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57. “婦人血氣不足, 崩漏虛損帶下久冷胎藏無子, 服之無不愈者”

105) 白裕相. 熱入血室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279. “... 一定한 主氣를 가지고 月經을 한다는 것이 남자와 큰 차이점이며 週期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排卵을 하는 과정에 우리 몸의 精神氣血의 주요 4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높은 수준의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作用과 現象들이 어우러져 女性만의 독특한 身體的, 精神的 環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韓醫學에서는 精神氣血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같이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類經附翼』에서 張介賓은 자궁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月事가 衝任脈의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했다.¹⁰⁶⁾ 그는 또한 『類經』에서 衝任脈이 經絡의 바다이고, 두 脈이 胞中에서 일어나 등 안쪽으로 가며, 衝任督脈은 모두 같은 곳에서 기원하여 세 갈래로 갈라진 것뿐이라고 했다.¹⁰⁷⁾ 이에 앞서 『赤水玄珠』에서도 胎藏과 衝任督脈과의 관계를 설명했는데,¹⁰⁸⁾ 여기에서 衝任脈이 血海가 된다고 했고, 督脈은 인체의 생명력을 주관하는 命門을 매개로 언급되었다. 衝任脈은 血海로서 자궁과 밀접하게 작용하며, 督脈은 命門을 매개로 자궁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衝任脈과 자궁의 밀접한 연관성은 다른 문헌에서도 나타났다. 『此事難知』에서는 血室이 血이居하는 곳이고 榮衛가 머무는 곳이며, 經脈이 흘러 모이는 곳으로 衝脈이라고 했다.¹⁰⁹⁾ 『御纂醫宗金鑑』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¹¹⁰⁾ 衝脈과 任脈의 역할에 대해 『名醫類案』에서는 衝脈이 血海가 되며, 任脈이 妊娠을 주관하여 함께 血室이 된다고 했다.¹¹¹⁾ 血室이 衝脈 또는 衝任脈을 의미한다고 본 견해는 이외에도 자주 등장했다.¹¹²⁾¹¹³⁾

2) 臟腑

자궁은 血을 매개로 肝, 脾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血이 정화된 水이기 때문에 腎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¹¹⁴⁾ 『巢氏諸病源候總論』에서는 妊娠婦가 腎에 病이 있어 虛熱이 발생하면 淋症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胞가 腎에 매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아 胞와 腎의 관계를 언급했다.¹¹⁵⁾ 그러나 肝, 脾, 腎 이외에도 자궁은 心, 命門, 三焦, 膀胱과 관계를 맺고 있다. 『仁齋直指』에서는 胞胎가 오직 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精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心의 연관성을 언급했다.¹¹⁶⁾ 『類經』에서 張介賓은 心은 血을 주관하고 腎은 子宮을 주관하여 함께 妊娠을 주관한다고 해 心의 관련성을 얘기했고,¹¹⁷⁾ 또한 胞가 元陽이 모이는 命門이라고 해 자궁의 개념을 命門과 연결 지었다.¹¹⁸⁾ 앞서 나왔듯이, 月事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張介賓은 胞는 子宮 相火가 있는 곳이며, 心은 血脈을 주관하고 君火가 있는 곳으로서 上下의 相火와 君火가 교류하여 月事가 일어난다고 했고,¹¹⁹⁾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胞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膀胱, 津液의 府라고도 했다.¹²⁰⁾ 이처럼 張介賓은 자궁개념을 설명할 때 君火로서의 心을 강조하고, 자궁 개념을 命門과 연관 지어 생명의 문, 즉

106)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醫家以衝任之脈盛於此則, 月事以時下, 故名之曰血室”

107)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114. “衝任爲經絡之海, 其起脈之處, 則在胞中而上行於背裏, 所謂胞者, 子宮是也. 此男女藏精之所, 皆得稱爲子宮, 惟女子於此受孕, 因名曰胞, 然衝任督脈, 皆起於此, 所謂一原而三岐也.”

108) 孫一奎.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4 赤水玄珠.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66. “胎藏母腹繫於命門. 命門者, 督脈之所循也. 又衝任二脈爲血之海”

109) 王好古.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3 此事難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27. “血室者, 血之所居也. 榮衛停止之所, 經脈流會之所, 衝脈是矣. 衝者, 竒經之一也.”

110)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東醫文獻研究室. 2006. p.167. “方有執曰, 血室爲營血停留之所, 經血集會之處, 即衝脈所謂血海是也.”

111) 江權.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446. “衝爲血海, 任主胞胎, 爲血室.”

112) 吳有性. 溫疫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78. “血室者, 一名血海, 即衝任脈也.”

113) 張機.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傷寒論註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42. “王冰曰, 陰靜海滿而去血, 謂衝脈盛爲海滿也. 即是觀之, 衝是血室可知矣.”

114) 전국한의학대학교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2014.

115)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 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51. “妊娠之人, 胞繫於腎, 腎虛熱成淋, 故謂之淋也.”

116)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523. “血藏於肝, 流注子臟, 而主其血者在心, 上爲乳汁, 下爲月水, 合精而爲胞胎, 獨非血乎.”

117)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p.223-224. “蓋心主血, 腎主子宮, 皆胎孕之所主也.”

118)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228. “胞子宮也. 命門元陽之所聚也. 胞之脈繫於腎, 腎之脈繫舌本, 胞氣不足, 當靜而無言.”

119)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65. “胞即子宮, 相火之所在也. 心主血脈, 君火之所居也. 陽氣上下交通, 故胞脈屬心而絡於胞中, 以通月事. 今氣上迫肺, 則陰邪遏絕陽道, 心氣不得下行, 故胞脈閉而月事斷矣.”

120)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96. “胞子宮也. 在男則爲精室, 在女則爲血室.”

命門이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궁과 心의 血을 중심으로 갖는 관련성에 관해서는 이보다 앞선 『普濟方』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普濟方』에서는 心肝이 상하면 血脈이 動하게 되어 衝任脈이 虛해져 胞門이 단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¹²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궁은 經絡 및 臟腑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月事, 妊娠 및 出產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 따라서 자궁 자체의 문제 외에도 네트워크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病理現象이 나타날 수 있다. 『素問·奇病論篇』에서는 妊娠 9개월의 妊產婦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¹²²⁾ 그 원인은 胞의 絡脈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胞의 絡脈은 少陰腎脈에 연결되어 있고, 少陰脈은 허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胞와 腎, 허뿌리는 脈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病理現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類經』에서 胞의 脈은 腎에 매어 있고, 腎의 脈은 허뿌리에 매어 있어서 胞氣가 부족하면 말이 없어진다고 하여¹²³⁾ 이 연결망을 재차 설명했다.

III. 考 察

자궁과 연관된 용어를 중심으로 문헌을 살펴본 결과 자궁의 개념은 다양한 맥락상에서 존재했다. 이와 같은 한의학의 다양한 자궁개념은 여성의 몸을 다루는 의학 분야 및 사회문화적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닌다.

1. 임신과 출산이 이뤄지는 자궁

121)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6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61. “傷於心肝, 觸動血脈衝任經虛, 乃至胞門不固”

12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4. “黃帝問曰, 人有重身, 九月而產, 此爲何也. 岐伯對曰, 胞之絡脈絕也. 帝曰, 何以言之. 岐伯曰, 胞絡者, 繫於腎, 少陰之脈, 貫腎繫舌本, 故不能言.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無治也, 當十月復.”

123) 張介賓 撰. 李南九 懸壺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228. “胞子宮也. 命門元陽之所聚也. 胞之脈繫於腎, 腎之脈繫舌本, 胞氣不足, 當靜而無言.”

자궁은 여성의 生殖器官으로 月經과 妊娠 및 出產에 관여한다. 한의학 문헌에서 자궁은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났는데, 현대 생의학적 개념과 유사하게 여성에게만 있는 生殖器官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개념으로 生命의 根源處로 이해되기도 했다. 먼저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자궁을 지칭하는데 쓰인 용어로는 女子胞(胞), 子宮, 子藏, 子戶, 子腸, 胎藏, 胞宮, 血室, 子處가 있었고, 자궁의 구체적인 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胞門, 子門, 陰門, 產門, 子臟, 그리고 胞胎 및 胎元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胞, 子宮, 子藏, 胞宮, 血室, 胞門, 子處는 기존연구¹²⁴⁾에서 언급된 바가 있으나, 나머지 용어는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밝히는 것들이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는 명칭 별로 문헌을 탐색하여 용어별 내용요약을 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자궁 전체와 자궁의 부분을 세분하고 자궁기능을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궁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자궁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女子胞로, 『素問·五臟別論篇』에 처음 나타났다. 女子胞가 月事, 妊娠 및 出產을 담당하는 자궁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후에도 논란의 여지없이 수용되었는데, 이는 ‘女子’라고 명시되어 여성에게만 국한된 기관임을 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널리 쓰인 용어인 ‘子宮’은 말 그대로 ‘아이가 있는 방’으로서 開閉의 기능이 있는 주머니로 이해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子藏, 子戶, 子腸, 胎藏, 胞宮, 血室이 있었다. 자궁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자궁경부를 지칭하는 용어, 둘째는 자궁체부를 지칭하는 용어, 셋째는 妊娠 시의 태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자궁경부를 가리키는 용어들 가운데 胞門이 가장 빈번하게 쓰였으며, 적절한 때에 열리고 닫히는 開閉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子門과 陰門, 產門이 있었다. 자궁경부를 제외한 체부만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子臟이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자궁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

124) 車恩伊, 姜政秀. 胞에 對한 文獻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0. 8(2). p.2.

되었으나, 자궁경부를 따로 지칭하는 胞門과 함께 쓰일 때에는 ‘藏’ 대신에 ‘臟’을 써 주머니 모양의 자궁체부만을 의미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반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胞胎와 胎元이 있었다. 胞胎는 精과 血이 엉겨 만들어지는 것으로 태아의 착상과 관련이 있으며, 妊娠 후 태아의 養育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즉 사람은 胞胎에서 생을 받아 형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태반이 형성되는 것이 매달 月經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내용은 月經 또한 妊娠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암시했다. 태반을 뜻하는 또 하나의 용어로는 胎元이 있었다. 이는 『景岳全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궁을 生命의 根源處로 보는 張介賓의 사상과 一脈相通한다.

2. 생명의 근원처로서 자궁

이상의 현대적 의미의 자궁(Uterus)과 유사하게 실질적인 장기로 보는 것 외에 한의학 문헌에서는 그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張介賓의 저서에서 나타났는데, 그는 자궁의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하면서도 이것을 여자에게만 국한된 기관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하는, 인간에게 공통되는 生命活動의 根源으로 보았다. 그는 자궁이 남자에게서는 精室, 여자에게서는 血室을 통칭한다고 하면서 자궁이 보다 상위개념임을 밝히고, 나아가 자궁이 생명의 문이라는 의미로서 命門과 같다고 보았다. 命門은 精을 갈무리하는 腎과 짝이 되는 眞陰의 府이며, 여기에서 생명활동이 시작한다.¹²⁵⁾ 이러한 命門과 자궁을 연결시킨 것은 妊娠과 出産이 이루어지는 자궁이 선천적 元氣가 부여되는 곳이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張介賓을 비롯한 明代의 命門學說에 따르면, 자궁은 ‘極을 본 따 消長變化의 樞紐(핵심)¹²⁶⁾이며, ‘君主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陰에 속하는 精을 갈무리하는 장소로서 궁극적으로 陰陽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太極의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는¹²⁷⁾ 命門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자궁은 道敎의 맥락의 丹田¹²⁸⁾과 동일하고, 君主之官으로서 기능한다.¹²⁹⁾ 이러한 맥락에서 張介賓은 月經이 心의 君火와 자궁 내의 相火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月經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妊娠과 出産에만 관련된 生命現象이 아니라, 인체의 根源的 生命作用인 君火와 相火의 作用으로 일어나는, 先天的 生命力的 作用인 것이다.

자궁을 설명하는 여러 맥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궁에 부여된 고유한 기능에 대한 인식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藏精處, 生命의 根源處로서의 자궁 기능 외에, 자궁은 月事를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妊娠, 養胎, 出産을 담당한다. 이러한 生命現象을 가능케 하는 자궁의 구체적인 기능은 閉開의 조절과 자궁 내부 환경의 조성 및 유지이다. 이 두 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無子나 子宮脫出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궁의 閉開 및 妊娠, 養育, 出産에 적합한 자궁 내부 환경 조성은 자궁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가 총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어나므로, 자궁과 연관되어 있는 經絡과 臟腑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맥락에서 자궁을 이해해야 한다.

자궁과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經絡에는 먼저 衝任脈이 있다. 衝脈은 血海로서 작용하고 任脈은 妊娠을 가능케 하여 妊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문헌에서 설명했다. 문헌에 따라 督脈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인체 전반으로 확장된 자궁개념의 맥락에서는 그 연관성이 드러나, 자궁의 특징적인 閉開機能이나 내부 환경 조성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

p.439. “命門象極, 爲消長之樞紐”

127) 白裕相. 易學의 醫易學 適用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p.94.

128) 은석민. 命門學說에 대한 醫史學的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204.

129) 趙獻可는 『醫貫』에서 命門이 곧 一身의 君主之官이라고 했다. (은석민. 命門學說에 대한 醫史學的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206.)

125) 張介賓. 類經附翼. 서울. 한미의학. 2009. p.86. “腎有精室, 是曰命門, 爲天一所居即眞陰之府, 精藏於此, 精即陰中之水也. 氣化於此, 氣即陰中之火也. 命門居兩腎之中, 卽人身之太極, 由太極以生兩儀而水火其焉消長繫焉. 故爲受生之初爲性命之本.”

126)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왔다. 衝任脈은 자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자궁 개념을 확장시켜 자궁 자체를 衝脈 또는 衝任脈과 동일하게 보는 관점도 있었다. 즉, 자궁은 衝任脈의 일부라는 것이다.

經絡 외에도 자궁은 臟腑와 協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자궁은 血을 매개로 肝, 脾와 관계를 맺으며, 腎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妊娠 시에 足少陰脈이 끊어지면 자연스레 그에 매어있는 허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말이 끊기는 병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자궁개념을 확장시켜 본 관점에서는 血을 중심으로 心도 연결망의 일부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心이 君火가 있는 곳으로 相火를 간직한 자궁과 協助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心은 자궁이 月經, 妊娠, 出產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자궁의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자궁을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주지한 가운데 여성의 生殖器官으로 보는 관점과 生命의 根源으로서 人體의 中心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배타적이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특히 明代의 張介賓에 이르러 등장한 命門으로서의 자궁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자궁개념과 命門개념을 연결했다. 張介賓에 따르면 자궁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命門과 다를바 없으며, 다만 여성에게서 드러나는 樣態가 다른, 精室과 대비되는 血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생명력을 부여받는 장소이자 性命의 기본이 되는 근원처라는 관점에서 자궁과 命門은 그 의미가 같다. 그리하여 자궁은 命門이라는 상위개념과 일치하거나 포함된다.¹³⁰⁾

잉태 이후 자궁의 역할은 命門과 다른 자궁 특유의 구체적 양상을 띤다. 즉, 자궁은 아이가 거처하는 곳으로, 발생 이후 出產 때까지 태아의 形體가

갖추어지고 각종 기능이 발달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기능과 모습을 갖추도록 出產 때까지 준비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궁의 역할은 命門과 구분되는 자궁의 고유한 특성이다.

3. 한의학적 자궁개념의 함의

위와 같은 자궁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張介賓이 제시한 자궁과 命門의 相通은 인체에서 자궁의 역할 및 위치, 그리고 生命의 발생과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먼저 자궁에 命門의 지위가 부여되어 生命의 근원처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자궁이 妊娠와 出產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궁은 妊娠와 出產에 특히 깊게 관여하지만, 이외에도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큐베이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妊娠와 出產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의 자궁에 병변이 나타났을 때 子宮摘出術을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권하는 현대의 치료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의 妊娠와 出產하는 자궁에 대한 주된 해계 모니는 생의학의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궁(Uterus)은 실질장기로서 배아의 착상이 이루어지고 出產 때까지 태아가 거처하며 발달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의미가 크다. 자궁은 하나의 器官이며, 妊娠와 出產의 가능성이 없는 자궁은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자궁 질환에 있어서 선부른 子宮摘出術을 적용하는 경우나, 難妊 환자의 경우 難妊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妊娠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곧바로 공격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시험관 시술(IVF)을 시행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관점이 실천되고 있는 예이다. 여기에는 자궁 자체에도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부재하다.

자궁을 인체 보편적인 生命의 根源處로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실질장기 뿐만이 아닌 無形의 生命력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月經, 妊娠, 出產은 특수한 기능이라기 보다는 근원적인 생명활동의 일부이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에게서 드러나는 現象을 그 자체로 특수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에서 인체의 생명활동과 연관 지어 본다. 즉, 자궁과 연

130) 이와 같은 관점은 命門學派와 그 중 張介賓의 독특한 시각으로, 한의학 전체의 주된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직 연구 및 임상 현실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한의학적 인체관을 바탕으로 현대의 생의학이 주도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안을 제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계론적 신체관을 바탕으로 하는 생의학적 관점과 대비되는 한의학적 관점으로 상정하였다. 그의 관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성의 몸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관된 어떤 병리현상이 나타났나 하더라도, 자궁의 문제를 인체 근원의 생명력의 문제로 보고 자궁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자궁을 하나의 器官으로만 보는 관점과는 그 전개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능력 또한 재조명된다. 남성과 여성이 각기 서로 다른 특수한 기능을 행하여 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생명활동의 일부로서 발생이 일어난다는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게 해주며, 각자에게 주체성을 부여한다. 血室과 精實 각각에 자체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기에, 생명의 잉태에 있어서 그 역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부여되는 것이다.

受胎가 일어난 이후에는 자궁의 고유한 기능이 발휘된다. 여성의 자궁은 태아가 出産 때까지 거처하면서 出産 이후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능적, 신체적으로 갖추어지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자궁을 命門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자체의 고유한 특징을 섬세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자궁을 실질장기로서 Uterus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는 자궁의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여, 자궁의 병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자칫 자궁을 실질장기로만 보아 그것의 나머지 인체와의 연관성을 무시하여 대체가능한 부품으로 보는 기계론적 관점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자궁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면서도 자궁이 맺고 있는 관계망, 즉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더 근원적인 생명력과 연관짓는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자궁을 命門과 동일시하여 命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관점 또한 편향된 관점이다. 자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을 보편적인 인간 생명력의 중심으로만 본다면, 여성 몸의 고유한 측면들을 간과하고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각종 생명현상을 지나치게 환원시켜 그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여성의 몸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만, 편향된 인식으로 인

해 영구적으로 여성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은 자궁을 나머지 인체와 단절된, 대체가능한 장기¹³¹⁾로 보는 관점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에 관한 한의학 문헌 조사를 통해 자궁 및 여성의 몸에 관한 관점을 정리했다. 그 결과 한의학 문헌에 현대의 자궁(Uterus) 개념과 유사한 내용 외에도 자궁을 바라보는 다양한 맥락이 있었음을 발견했고, 그 맥락에 따라 자궁에 부여되는 역할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궁을 命門과 연결시킨 내용은 여성의 몸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성 질환 전반의 치료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생의학적 의료추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그 함의가 크다. 자궁에 인류 보편적인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자궁으로 대표되는 여성 몸의 고유한 특성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몸에 나타나는 각종 현상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여성과 사회의 관계를 넓게 조망하여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건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몸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사회적 인식, 즉 여성의 몸을 해부학적 실질장기로서의 자궁으로 환원시키는 관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임신과 출산에 한정시키는 관점 등에 구체적인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편향된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31) 1931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자궁이식술이 시행된 이래 (이 일화는 영화 대니쉬 걸의 주인공인 릴리 엘베의 이야기이다), 여러 차례의 실패 이후 2014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이식된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자궁 없이 난소만 가지고 태어난 이 여성은 2013년에 60대 초반의 여성에게서 자궁을 이식받았다.(Wikipedia. Uterus transplantation.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s://en.wikipedia.org/wiki/Uterus_transplantation; BBC News. James G. First womb-transplant baby born. (2014. 10. 14. 기사)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bbc.com/news/health-29485996>)

VI. 結 論

지금까지 한의학 문헌에 나타나는 자궁을 뜻하는 용어와 자궁이 담당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의학적 자궁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한의학 문헌에서 자궁은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났다. 그 중 현대 생의학적 자궁개념과 유사한 것도 있었고, 한의학의 독특한 생명관 및 신체관을 반영하는 내용도 있었다. 먼저 자궁을 의미하는 용어에는 女子胞(胞), 子宮, 子藏, 子戶, 子腸, 血室, 子處, 胞宮, 胞門, 赤宮, 胎藏, 血海, 胞絡, 產門, 胞藏, 陰門, 胞胎, 胎元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궁의 특정한 부위, 즉 자궁경부와 체부, 태반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命門學說의 思想과 一脈相通하는 生命의 根源으로서 자궁을 의미하기도 했다.

2. 자궁의 기능에는 月事, 妊娠, 養胎 및 出產이 있었다. 이를 수행하는 자궁의 구체적인 기능은 開閉와 자궁 내부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자궁에서 일어나는 生命現象은 자궁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궁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經絡 및 臟腑가 하나의 연결망, 즉 네트워크로서 서로 協助하여 일어났다. 문헌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協助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자궁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련 經絡 및 臟腑의 기능에 病理的 現象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자궁을 命門과 연결지어 본 관점에서는 藏精과 生命의 根源處로서의 역할이 나타났다.

3. 문헌에 나타나는 자궁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자궁을 여성 고유의 生殖器官으로 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자궁을 남녀 모두에게 존재하는 人間 普遍的인 生命活動의 根源으로 보는 관점이다. 후자의 경우는 張介賓이 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자궁에 命門의 의미를 부여하여 기존의 협의의 자궁개념에 새로운 의

미를 던져준다.

4. 자궁을 命門과 연결시켜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자궁 자체에 근본적인 생명력이 깃들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궁은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로 인해 자궁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명현상에도 보다 근원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자궁은 대체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력을 발휘하는, 보다 큰 네트워크의 일부이면서 動力인 것이다. 이것은 難妊이나 早期出產과 같이 妊娠 및 出產과 관련된 질환, 또는 子宮筋腫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5. 생명력의 근원처라는 관점에서 자궁과 命門은 같은 맥락 상에 있지만, 受胎가 일어난 이후에는 자궁의 고유한 기능이 발휘된다. 여성의 자궁은 태아가 出產 때까지 열달 가량 거처하면서 出產 이후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능적, 신체적으로 갖추어지는 시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자궁은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 자체의 생명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태아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궁의 역할은 命門과 구분되는 자궁의 고유한 영역이다.

References

1. Faculties of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edical Physiology. Revised Korean Medical Physiology. Seoul Jipmundang. 2014
전국한의학대학교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 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2. Wang Q, Wu CY. Zhongyicangxiangxu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2.
王琦, 吳承玉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3.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eong 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4.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 Yeo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5.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ed. and trans.. Leijing. Seoul. Bubin Publishing. 2006.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6. Zhang G. Yishuo. Taibei. Xinwenfengchuban Gongsi. 1981.
張杲. 醫說.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1.
7. Yang SY. Siku Qianshu Renzhaizhizhi. Shanghai.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1994.
楊士瀛. 四庫醫學叢書 仁齋直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8. Zhu YX. Jinyuansidajia Medical Collections Gezhiyulun. Seoul. Bubin Publishing. 2007.
朱彥修.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格致餘論. 서울. 法仁文化社. 2007.
9. Jiang G. Mingyileia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5.
江瓘.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10. Zhang J.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2. Jingyuaoluelunzhu.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張機.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金匱要略論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1. Wu Q. Yuzuan Yizonginjia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6.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東醫文獻研究室. 2006.
12. Chen ZM. Furendaquanliangf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5.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3. Zhang JB. Leijingtuyi Fu Leijingfuyi. Seoul. Sungbosa. 1982.
張介賓. 類經圖翼 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14. Chen C et al.. Taipinghuiminhejijufang. Shenyang. Liaoningkexuejishu Chubanshe. 1997.
陳承 等. 太平惠民和劑局方.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15. Wang KT.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37. Zhengzhizhunshe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王肯堂.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7 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6. Zhang JB.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46. Jingyuequanshu.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張介賓.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46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7. Xue J.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31. Xueshiyan.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薛己.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1 薛氏醫案.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8. Sun YK.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34. Chishuixuanzhu.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孫一奎.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4 赤水玄珠.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9. Zhang J.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2. Shanghanlunzhushi.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張機.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傷寒論注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0. Wang HG.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13. Cishinanzhi.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王好古.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3 此事

- 難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1. Li SZ. Bencaogangmu. Beijing. Beijing Yanshang Press. 200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22. Chao YF.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2. Chaoshizhubingyuanhouzonglun.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巢元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 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3. Sun SM.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3. Beijiqianjinyaofa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孫思邈.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3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4. Wang ZZ. Zhenjiuzishengji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7.
王執中. 鍼灸資生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25. Zhu S.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15. Pujifa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5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6. Zhu S.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23. Pujifa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3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7. Zhu S.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25. Pujifa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5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8. Zhu S.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26. Pujifa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朱橚.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26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9. Yu C.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51. Yimenfalun.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喻昌.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51 醫門法律.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0. Li DY. Jinyuansidajia Medical Collections Lanshimicang. Seoul. Bubin Publishing. 2007
李東垣.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蘭室秘藏. 서울. 法仁文化社. 2007.
 31. Wu YX. Wenyilu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7.
吳有性. 溫疫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32. Xu DC. Qinding Siku Qianshu Zibuwu Yijialei 53. Shanghanleifang. Seoul. Daesung Publishing. 1995.
徐大椿.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53 傷寒類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3. Chen WZ. Sanyinjiyibingzhengfanglu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3.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4. Dai YL. Sikuyixuecongshu Tuiqiushi. Shanghai. Shanghai Gujichubanshe. 1991.
戴原禮. 四庫醫學叢書 推求師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35. Cha EY, Kang JS. Reference Research of Bao. Taejon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0. 8(2).
車恩伊, 姜政秀. 胞에 對한 文獻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0. 8(2).
 36. Kim YJ.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Fuku Chapters Between the『Sunzhenren Qianjinfang』and『Beijiqianjinyaofang』.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4)

- 김용진.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
婦人篇의 差異點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
典學會誌. 2011. 24(4).
37. Kim HW, et al.. Bibliographical Study on
Fuku in the 『Huangdineij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5. 18(1)
김혜원 외 3인. 『黃帝內經』에 나타난 婦人科
에 관한 文獻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1).
38. Cho MH, Park HG. A Medical Historical
Study on Fuku of the Ming and Qing
Periods.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1996. Vol.10.
趙勉彙, 朴炫局. 明·清代 婦產科의 醫史學的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Vol.10.
39. Jang YH. Research on the History of
Disease in Fuku pre-Song period.
Daej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Dissertaion. 2003.
張溶薰. 宋代以前의 婦人科 疾病史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40. Yoon HJ. A Study on the History of
Disease in Fuku of the Jinyuan annd
Mingqing periods. Daej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issertaion.
2004.
尹憲重. 金元時代 및 明清時代의 婦人科 疾
病史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
位論文. 2004.
41. Baik YS. A Study on the Pattern of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4).
白裕相. 熱入血室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
典學會誌. 2013. 26(4).
42. Baik Y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Yixue on Medical Yixu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4. 27(3).
白裕相. 易學의 醫易學 適用에 대한 小考. 大
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43. Eun SM. A Medical Historical Study on
the Mingmun Theory.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4).
은석민. 命門學說에 대한 醫史學的 考察. 大
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44.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ody
Inform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snuh.org/>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45. Wikipedia. Uterus transplantation.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s://en.wikipedia.org/wiki/
/Uterus_transplantation](https://en.wikipedia.org/wiki/Uterus_transplantation)
46. BBC News. James G. First
womb-transplant baby born. (2014. 10.
14. Report)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bbc.com
/news/health-29485996](http://www.bbc.com/news/health-29485996)